

94개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일주일 사이 9곳 더 늘었다

교육부, 서울 4곳, 경기 2곳, 강원·대구·충북 1곳씩 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대응방침을 연일 강경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숫자는 또 늘었다.

4일 교육부가 공개한 3일 기준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94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85개원과 비교해 일주일 사이 9곳이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은 27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늘어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공개한 같은 자료에서도 4곳이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4곳 이상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에서는 2곳이 증가해 총 14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폐원 추진 중으로 집계된 2곳은 모두 운영악화로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강원과 대구, 충북에서도 각각 1건의 추가 폐원 추진이 발생했다.

경기와 강원에서는 원아 모집 중지 각각 1건이 발생했다. 경기에서는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원아 모집 중지를, 강원에서는 원아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아 모집 중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을 중지했다가도 다시 원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아모집을 폐원 추진에 합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해당 지역에 폐원 인원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불법 폐원이나 원아모집을 보류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3일 협상단을 발족하고 교육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립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유총과의 대화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스



사랑의 동전모기 4일 오전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랑의 동전모기'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어린이들이 직접 모은 저금통을 개봉해 동전을 쏟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43개소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한 1년간 모은 저금통을 기부해 진행됐다.

서울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132만 가구...특별안전점검

가스 누출 등 점검...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

서울시가 12월 한달간 노후보일러 안전점검과 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보일러 가동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5개사와 협력해 무료컨설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내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도시가스사 안전점검요원들이 노후보일러 사용세대에 방문해 가스 누출 여부, 배기통 이탈 여부 등 특별한

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방법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한다.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의 경우 열효율이 80% 내외로 떨어지고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173ppm에 달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서울에서 약 13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열효율 92%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20ppm 이내인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안내해 에너지 절감에 따

른 교체비 회수방안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가정용 보일러는 겨울철 생활 필수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난방·발전 부문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율(39%)을 차지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정용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에 달한다.

서울시는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셀타에너지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 알토앤드우 등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 BC카드와 협력해 친환경렌딩보일러로 교체신청시 1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이웃 위해 '나눔 옷장' 겨울의 두 기부하세요

서울시는 나눔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에 올해 총 8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은 '나눔 박스'라는 이름의 옷 수거함을 참여기관에 약 1~2주간 설치하면 임직원들이 옷을 기부해 노숙인이나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프로젝트다.

올해 참여하는 8개 기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 서울시 출연·산하기관 6곳과 ▲신세계이앤씨 ▲한화호텔&리조트 등 민간 기업 2곳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나눔 박스 설치, 참여기관과 수혜자간 연계 및 옷 전달을 담당한다. 연내에 노숙인 시설이나 홀몸 어르신 가정에 포장된 옷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옷을 입고 잘 됐던 일, 좋았던 추억을 함께 담아 옷을 받는 거리 노숙인, 홀몸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질 수 있도록 희망까지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청-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개최

해양경찰청이 생보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과 4일 오전 웨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18년 생명존중대상'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해경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는 조현배 청장 이종서 재단 이사장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 대상자는 거친 해상구조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경감 박상열·최종대, 경사 이동건·임현석·양철중·김재훈, 경장 최명근·김효철, 순경 이창근 등 총 10명이

다. 이들은 상패, 포상금과 함께 포상휴가를 지급받는다.

이종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환경에서도 스스로에게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숭고한 행동은 조직과 사회의 큰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조현배 청장은 "해양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어말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영화 활용해 청소년 도박 예방한다

서울시교육청, 중·고교 교사 750명 대상으로 수업시연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교안자료 배포 및 수업시연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불법도박 사이트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47만 52,099명 중 2만4,138명(5.0%)만이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좋은 교안과 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업자료 개발과 더불어 수업지도안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영화를 활용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자료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공동 기획 불법도박 사이트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47만 52,099명 중 2만4,138명(5.0%)만이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수업지도안



료를 통해 학생들이 도박 유혹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대응 능력을 키워 도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